

광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단23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2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 02:55경 광주 서구 C건물,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가 전화 상대방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서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 11 오늘 속옷 뭐 입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통화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성인혜